

병원간호사의 정치관심도, 정치 효능감 및 매체 이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전소연¹ · 고일선² · 배가령³

연세대학교 대학원¹, 연세대학교 간호대학², 서울여자간호대학교 · 연세대학교 대학원³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Media Usage as Factors Influencing Political Participation in Hospital Nurses

Jun, So Yeun¹ · Ko, Il Sun² · Bae, Ka Ryeong³

¹Graduate School,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³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 Graduate School,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how political interest, efficacy and media usage influen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hospital nurses. **Methods:** Participants were 286 nurses, who were informed of the study purpose and agreed to participate. Data were collected during November and December, 2012 using a questionnaire on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media usag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é'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Results:** Score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interest was average. The score for political efficacy was higher than average. Political participa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education level, job career, position, and intention to vote in the election for the 18th President. Political participation had a moderate positive correlation with political interest ($r=.50, p<.001$), political efficacy ($r=.32, p<.001$) and media usage ($r=.14, p=.022$). Political interest ($\beta=.43$) was the factor most influential on political participation, explaining 25% of the variance. A total of 32% of political participation was explained by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TV news or SNS for media use.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to promote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efficacy for hospital nurses to improve political participation.

Key Words: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Media use, Nurse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정치참여란 정부나 정책, 법안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직접·간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적 시민들의 활동[1]으로, 정치적

이슈에 주목하는 정치관여(political involvement)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의 정치개입(political engagement), 기타 정치활동(political activity) 등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지만 정치참여로 통칭되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인의 정치 참여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시민일수록 정치참여가 활발하며, 성차는 크지 않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참여 수준이 더

주요어: 정치참여,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이용, 간호사

Corresponding author: Bae, Ka Ryeong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38 Ganhodaero-ro, Hongje-dong, Seodaemoon-gu, Seoul 120-742, Korea.
Tel: +82-2-2287-1010, Fax: +82-2-396-8918, E-mail: baekr8385@naver.com

Received: Apr 22, 2014 | Revised: May 20, 2014 | Accepted: Jun 6, 201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활발하다고 하였다. 또한 투표참여를 제외하고 젊은 시민일수록 더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 인지와 정치효능감을 포함한 시민적 성향이 정치참여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3]. 반면에 간호사의 경우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4].

간호사는 병원조직 구성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인력으로 환자의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5]. 또한 미래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가 요구됨에 따라[6], 구성원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루어져있는 간호사들은 조직적 차원에서 정치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간호사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간호사 정치인을 키우며 간호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취지로 1991년에 대한간호정우회가 창립되어, 선거에서 간호사 출신 후보를 지원하며 후보들에게 간호 관련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4월 현재까지 간호사 정치인으로 장관 2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46명이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조직적인 정치참여는 크게 활발하지 못하며, 잠재된 정치적 역량과 정치참여는 기대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7]. 또한 대한간호협회에서는 2013년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대안적 방안 제시와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간호단독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31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이 소통하는데 앞장서고 있지만 대한간호정우회와 더불어 간호사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 간호사의 경우에는 미국 간호협회(American Nurses Association, ANA), 미국 간호교육인정평가위원회(the National League for Nursing, NLN), 미국 간호대학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 AACN)와 같은 전문적인 조직의 노력을 통해 일차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8].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간호사는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참여에 긍정적이지만 정치효능감이 낮으며, 정치참여는 선거 때 투표로 그치고 정치가에게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하지 않으면서 정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못 느끼고 있다[9]. 또한 많은 미국 간호사들이 간호사의 돌봄과 정치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전문가로서 보건의료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며, 정치참여 방법과 관련지식이 적고, 정치참여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는 실천적 옹호자로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도덕적 책임이 있고[11], 수준 높은 간

호의 질과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방법과 수단, 보건의료 관련 자원이용과 배분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12], 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치참여를 하지 않는 간호사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영향력 있는 정책결정자를 설득하지 못하는 반면에,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간호사는 건강 관련 이슈에서 전문직 간호사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으며 전문인으로서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따라서 간호사의 정치참여는 국민건강에 대한 간호의 관점을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고 보건 의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직,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전문직 간호의 향상과 질 높은 간호서비스 실천의 장을 확대하고 간호서비스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12].

간호사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가장 대안적인 모델은 Verba 등이 제시한 시민자발성 모델(Civic Voluntarism Model)이다[13]. 시민자발성 모델에 의하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개로, 첫 번째 요인인 '자원'은 인구학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일컫는 개인의 사회적 특성이며, 두 번째 요인인 '심리적 관심'은 정치적 활동을 유발하는 동기부여를 말하는 것이고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정치적 정보, 정치적 당파성 등을 말한다. 이 중에서 정치효능감과 정치 및 공공의 사건에 대한 개인의 관심인 정치관심도는 시민자발성 모델에서 정치참여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세 번째 요인인 '모집 네트워크'는 개인의 정치참여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며 정치 참여를 이끄는 조합, 동맹, 협회, 종교 조직 등이다. 이 세 개의 요인에 따르면 개인이 자율단체의 가입과 참여도가 높고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강할 때 정치참여를 활발히 하며, 자원이 부족하거나 정치적 관심, 네트워크가 없으면 정치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3]. 이 모델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치효능감과 정치관심도를 높여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고[14], 미국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8]에서는 심리적 관심 중 특히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정치적 정보와 지식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외에도 최근 대중매체들이 정치 현상을 매개하는 매개 정치시대(mediated-politics)가 전개되고 있어[15] 대중매체 이용이 정치참